

교회 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인물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태복음 4:17

주간 충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24

생명의 말씀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THE WEEKLY CHOONG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노광원 편집: 양재웅

모든 성도들을 위한 말씀의 잔치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2009년 제2차 청지기훈련

주제: 특별 기도 (누가복음 6:12)

일시: 6월 19일 금요일 양집회 시

강사: 김성관 위임목사

지난 2월에 있었던 제1차 청지기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기도'(시 16:1)라는 주제를 통하여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의 심령에 깊이 각인하였으며 자기를 온전히 부인하며 겸손한 기도의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6월, 우리는 다시 한 번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2009년 제2차 청지기훈련이 바로 그 시간입니다. 청지기훈련은 잃어버린 영혼(눅 19:10)들과 믿음의 길(마 16:24)을 걷는 모든 성도들을 위한 말씀의 잔치입니다.

'특별 기도'(눅 6:12)라는 주제로 진행될 이번 제2차 청지기훈련은 방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기도의 놀라운 비밀을 깨닫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실 위임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수종드는 모든 일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무엇보다도 나 자신이 꼭 참석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간구하시고, 복음이 필요한 친지나 이웃들에게 청지기훈련 참석을 권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시 32:6).

생명의 말씀(금요일양집회)

모조 회개

인간의 도 닦음, 고행은 왜 그렇게도 우리에게 실망을 주고 좌절감을 남기는 것일까? 고행이 그 답을 줄 수 없는 이유는 바로 그 고행 자체가 자기를 믿는 것에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고행은 인간의 감정과 인식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생명 얻는 회개'는 하나님 중심이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융화되어 있다. 가령 우리가 돈을 요구할 때에 "그 천 원의 앞면만 주세요."라고 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믿음으로부터 떠난 회개가 있을 수 없고 회개가 없는 믿음도 있을 수 없다(사 1:18).

기독교는 죽어야 사는 종교이다(요 3:3).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진리이다(히 9:14). 죄를 깨달을 때에 이것으로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만 한다(요일 1:7~9). 율법은 인간들로 하여금 죄에 대한 하나님의 노하심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율법을 듣고 이 율법을 깨달아 그것에 응답하는 것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주님의 말씀은 듣는 자들로 하여금 목마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께로 와서 마시게 하는 것이다(요 7:37; 사 55:1~2).

성경은 구원을 얻는 길이 결코 자신을 죄짐으로 무겁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오히려 예수님은 무거운 짐진 자들을 향하여 내게로 오라고 부르셨

다(마 11:28). 죄를 깨닫는 그 자체는 회개가 아니다. 그리스도에게로 돌이키지 않는 죄의 깨달음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 율법과 그의 영향력은 결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 그리스도에게로 와서 마신다는 말씀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에 의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이다. 구원은 오직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연합함에서 온다(요 4:14, 29). 메마른 죄인에게 자신의 목마름을 느끼게 하는 가장 좋은 길은 시원하고 깨끗하고 신선한, 하늘로부터 흘러내리는 생명을 주는 것이다. 이것이 교회 사역의 전부이다.

죄를 깨닫는 것만이 모든 것의 목적인 것처럼 요구되고, 그리스도를 떠나서 인간의 불의가 밝혀진다면, 인간은 고행의 길을 걸어야만 하는 상태에 그대대로 내버려질 수밖에 없다.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과 같은 처절한 상태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믿음의 회개는 죄인이 어둠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 나라의 빛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눅 15:17). 더 이상 죄의식에 빠져 어둠 속에 매어 있는 죄의 종이 아니다. 죄를 깨달음으로 믿음과 연합하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다. 자신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음을 철저하게 깨닫는 것이다. 삶의 중심이 되시는 그리스도께 돌아오므로 믿음을 통하여 발견하는 것이 있다. 인간의 가장 깊은 속에서 간절히 사모하던 것들을 참으로 채워줄 수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집에 있음을 발견한다. 인간의 간절한 소망이 무엇인가? 용서받 받는 것, 심령이 깨끗하여지는 것, 영원한 삶, 지혜와 사랑과 희락과 평강을, 인간은 모두 간절하게 원하고 있다(골 2:2~3). 아멘.

HOW WONDERFUL THE GRACE OF CHRIST

(1) Therefore there is now no condemnation for those who are in Christ Jesus.

(2) For the law of the Spirit of life in Christ Jesus has set you free from the law of sin and of death. ...

(10) If Christ is in you, though the body is dead because of sin, yet the spirit is alive because of righteousness.

(11) But if the Spirit of Him who raised Jesus from the dead dwells in you,

He who raised Christ Jesus from the dead will also give life to your mortal bodies through His Spirit who dwells in you. (Romans 8:1~11)

There are always struggles in the Christian life. Our flesh and the Holy Spirit fight against each other all the time. The good news is that true believers experience freedom and victory in these constant battles through the grace of Christ. Real Christians understand that living for the glory of God is impossible without Jesus. They know that only Jesus can live by the Law. Many of today's Christians think that if they do well and act well, then God will give them happiness, success, and all kinds of blessings, but this is simply not true. No one does well under the Law. No matter how hard you try or how hard you wish to live the very best life for God, the truth is that you can't. You can't, but Jesus can! When you start living by faith, God gives and receives glory. You need to stop wasting your time and effort by trying to live the Christian life by the Law, and start living the Christian life by the wonderful grace of Christ. His grace comes with guarantees. What kind of guarantees come with living under the grace of Christ?

The grace of Christ guarantees no condemnation. "Therefore there is now no condemnation for those who are in Christ Jesus" (Rom. 8:1). As a believer, this means that your fight with the Law will end in victory. Paul understood the tough times inside Christians. He confessed about his spiritual struggle. "Wretched man that I am! Who will set me free from the body of this death? Thanks be to God through Jesus Christ our Lord! So then, on the one hand I myself with my mind am serving the law of God, but on the other, with my flesh the law of sin" (Rom. 7:24-25). God gives us the answer to our spiritual problems through the grace of Christ. Jesus said, "For God did not send the Son into the world to judge the world, but that the world might be saved through Him. He who believes in Him is not judged; he who does not believe has been judged already, because he has not believed in the name of the only begotten Son of God" (Jn. 3:17-18). Those who are in Christ have a glorious and triumphant end, but those who reject the grace of Christ continue in condemnation. John 3:19 says, "This is the judgment, that the Light has come into the world, and men loved the darkness rather than the Light, for their deeds were evil." How wonderful that the grace of Jesus Christ guarantees no condemnation for all who believe!

The grace of Christ guarantees no legalization. "For the law of the Spirit of life in Christ Jesus has set you free from the law of sin and of death. For what the Law could not do, weak as it was through the flesh, God did: sending His own Son in the likeness of sinful flesh and as an offering for sin, He condemned sin in the flesh, so that the requirement of the Law might be fulfilled in us, who do not walk according to the flesh but according to the Spirit" (Rom. 8:2-4). The grace of Christ sets you free, but the Law brings you sin and death. Too many of today's churches continue to teach others that if you do good then you will go to heaven. Romans 5:1-2 says, "Therefore, having been justified by faith, we have peace with God through our Lord Jesus Christ, through whom also we have obtained our

introduction by faith into this grace in which we stand; and we exult in hope of the glory of God." Whoever thinks that the Law is more important is wrong. Jesus is against that thinking. He told the religious leaders. "But woe to you, scribes and Pharisees, hypocrites, because you shut off the kingdom of heaven from people; for you do not enter in yourselves, nor do you allow those who are entering to go in. ... Woe to you, scribes and Pharisees, hypocrites, because you travel around on sea and land to make one proselyte; and when he becomes one, you make him twice as much a son of hell as yourselves" (Mt. 23:13-15). Jesus wants you to live by faith, not by the Law. Living by the Law casts away God's grace. Paul explained, "nevertheless knowing that a man is not justified by the works of the Law but through faith in Christ Jesus, even we have believed in Christ Jesus, so that we may be justified by faith in Christ and not by the works of the Law; since by the works of the Law no flesh will be justified" (Gal. 2:16). "Therefore the Law has become our tutor to lead us to Christ, so that we may be justified by faith" (Gal. 3:24). The Law points you to the need of the grace of Christ, it can't save you. Only Jesus saves! Your salvation is based on grace through faith alone, so don't worry about the Law. How wonderful that the grace of Jesus Christ guarantees freedom from the Law to all who believe!

The grace of Christ guarantees no separation. "If Christ is in you, though the body is dead because of sin, yet the spirit is alive because of righteousness. But if the Spirit of Him who raised Jesus from the dead dwells in you, He who raised Christ Jesus from the dead will also give life to your mortal bodies through His Spirit who dwells in you" (Rom. 8:10-11). When you keep the faith the Spirit never leaves you. Separation occurs when you think the Law is more important than the grace of Christ—that's the only separation. By faith you conquer all! Romans 8:35-39 reminds us of the power of the grace of Christ, "Who will separate us from the love of Christ? Will tribulation, or distress, or persecution, or famine, or nakedness, or peril, or sword? Just as it is written, 'For Your sake we are being put to death all day long; We were considered as sheep to be slaughtered.' But in all these things we overwhelmingly conquer through Him who loved us. For I am convinced that neither death, nor life, nor angels, nor principalities, nor things present, nor things to come, nor powers, nor height, nor depth, nor any other created thing, will be able to separate us from the love of God, which is in Christ Jesus our Lord." How wonderful that the grace of Jesus Christ guarantees eternal unity!

My dear friend, what is your response to God's invitation to the grace of Christ? Do you throw away His guarantees of grace by living under the Law? Do you reject His guarantees because of your pride and selfishness? Do you want to share His guarantees with other people? Please live by the grace of Christ and let His guarantees bring you victory now and forever. Amen. 

| 다들 주일 설교 |

놀라운 그리스도의 은총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1~11)



김성환 목사

그리스도인의 삶은 언제나 갈등의 연속입니다. 우리의 육체와 성령은 항상 서로 대적하여 싸웁니다. 기쁜 소식은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참 신자들이 이 끊임없는 싸움에서 자유와 승리를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예수님 없이는 전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오직 예수님만 율법에 의해 살 수 있을 또한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무엇인가 잘 해내고 올바르게 행동하면 하나님께서 행복과 성공, 그리고 온갖 축복들을 부여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말로 사실이 아닙니다. 율법 아래에서 온전하게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도, 아무리 하나님을 위해 최선을 다해 살기를 간절히 원한다고 해도 여러분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 진실입니다. 여러분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주시며 또한 영광을 받으십니다. 더 이상 율법에 의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면서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이제 놀라운 그리스도의 은총을 누리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시작하십시오. 주님의 은총은 놀라운 것들을 보충해 주십니다. 그리스도 은총 아래에서의 삶은 어떠한 것들을 보충해 주니까?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

그리스도의 은총은 결코 정죄함이 없음을 보충해 줍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롬 8:1). 이것은 신자에게 있어서 율법과의 싸움이 결국 우리의 승리로 끝이 날 것을 뜻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힘겨운 싸움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영적 싸움에 대해 고백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롬 7:24~25).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은총을 통해 우리 영적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요 3:17~18).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영광스러운 승리의 결말을 맞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은총을 거절할 자들은 계속 정죄 가운데 머물러 있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3:19은 말합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하므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들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은총입니까!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

그리스도의 은총은 더 이상 율법에 의해 구속받지 않음을 보충해 줍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은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합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에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롬 8:2~4). 그리스도의 은총은 여러분들을 자유롭게 합니다. 그러나 율법은 여러분을 죄와 사망 가운데에 빠지게 합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선을 행하면 천국에 가게 된다고 계속해서 신자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5:1~2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율법이 더 중요하다는 사람들의 생각은 틀렸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생각에 반대하십니다.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도다 ...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도다”(마 23:13~15). 예수님은 여러분이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율법에 의한 삶은 하나님의 은총을 저버리게 합니다. 바울은 이같이 설명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써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써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갈 2:16).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갈 3:24). 율법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함을 지적해 줄 뿐, 여러분을 구원해 줄 수는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은총에 의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율법으로부터 자유가 보장되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은총입니까!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다

그리스도의 은총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어지지 않음을 보충해 줍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롬 8:10~11). 여러분이 믿음을 지기면 생령은 결코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율법은 그리스도의 은총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믿음은 모든 것을 이깁니다! 로마서 8:35~39은 그리스도의 은총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상기시켜 줍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 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환과 고통이나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영원한 연합이 보충되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은총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율법 아래에 살려서 하나님의 은총의 약속들을 저버리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자식심과 이기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총 가운데 보좌해 주시는 것들을 거절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이 은총들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기를 원하십니까?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살아가십시오. 주님의 확실한 약속들이 여러분에게 영원한 승리를 안겨줄 것입니다. 아멘. ■

수요부예배 메시지(2009. 6. 3)

성령과 거듭남

(고린도전서 12:13~27)



가르쳤다. “몸은 하나님께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고전 12:12). 고린도교회는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것을 통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자신의 의로움을 과시하거나 분파를 만들어 분쟁하였다. 그들은 예수님, 십자가, 성령님에 대해서 알았지만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했던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한 몸이 되지 못하였다(고전 12:13~20). 성령과 거듭남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삶 속에서 함께 이루어진다. 이것은 예수님의 약속이기도 하다(요 16:7~9). 성령의 역사는 복음을 드러내는 데 있다(요 16:13~14).

믿는 자에게 새 삶을 주실 것이다 성령은 믿는 자에게 새 삶을 주신다. 단순히 예전에 모르던 것을 깨닫는 것이 아니다. 조금씩 나아지고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완전히 바뀐다. “우리를 구원하시도 주가 행한 바 의로는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딤후 3:5). 인간의 노력으로 새 삶을 얻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미 죽은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오직 십자가의 은혜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로 우리는 새 삶을 살 수 있다(엡 2:8). 이 거듭남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다(요 3:5,7).

마가복을 강해 74

예수님의 원수들이 그의 죽음을 계획하다
(14:1~11)

예수님을 붙잡아 죽이는 시점을 명절 이후로 미루었다(막 14:2). 유대인이라면 반드시 유월절을 지켜야 했다. “유월절 제사를 떠 떠나고 여호와의 대제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 질 때에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신 16:5~6). 유월절은 유대에 거주하던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세계 각처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모두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큰 명절이다. 그래서 자칫 이 때 예수님을 죽였다가 행여 민란이 일어날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그들은 명절에 예수님을 잡아 백성 앞에 세웠다.

이와 같이 종교지도자들의 관심은 말씀에 있지 않았다. 백성의 눈치를 보았으며 그들의 존경과 칭찬을 구하였다. 그래서 구원을 기념하는 큰 명절의 순간에도 그들은 모아서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지에 대한 것보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에 관심을 두었던 것이다.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이유는 예수님이 말씀을 잘못 가르쳤기 때문이 아니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회하니 이는 우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기므로 그를 두려워함이라”(막 11:18). 예수님은 말씀을 정확히 가르치셨으나 그것은 자신들이 받아 두려워 할 명예와 권위를 손상시켰기 때문이었다. 자신들이 세워놓은 종교적 문화와 전통을 깨뜨리는 예수님을 용납할 수 없었다. 종교지도자들은 종교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했지만 오히려 그를 죽이려고만 했다.

믿는 자들 안에 거하신다 성령은 믿는 자들 안에 거하신다. 고린도교회의 성도들도 그랬지만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최우선으로 여기지 못하고, 그 자리에 자신이나 세상의 것으로 채울 때가 많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람이 제 아무리 교회 안에서 많은 일을 할지라도 성령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에 영적 문제가 생긴다. 그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아들 나치와 세상을 믿는 가짜 믿음에 매이게 될 뿐이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절대로 자기의 뜻을 주장하지 않는다. 오직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지체의 각 부분이 된다(고전 12:27). 주님과 떨어질 수 없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니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전 6:19~20).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요 14:20,23)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믿는 자들을 인치신다 성령은 믿는 자들을 인치신다. 이 말은 인침을 받은 신자의 소유권이 주님께 있음을 의미한다. 이것은 세상의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확실한 보증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자녀인 것을 성령이 증언하시기 때문이다(롬 8:14~15). 성령의 인침을 받으면 본성이 사라지고 사랑이 회복된다(고전 12:25).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망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엡 1:13~14). 성령의 인침을 통해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진실로 감사하게 된다.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 성령의 세례는 한 몸이 되게 하며 성령으로 찬만하게 한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고전 12:13). 마가의 다락방에서 첫 번째로 성령 세례를 받은 120명의 삶은 송두리째 바뀌었다(행 2:1~3). 그들은 진실로 한 몸이 되었고, 복음을 전하는 데 한 마음이 되었다.

성령과 거듭남은 함께 역사한다. 성령은 믿는 자에게 새 삶을 주신다. 뿐만 아니라 믿는 자를 인치시고 그들 안에 거하시며, 한 마음과 한 몸을 가진 복음의 중인이 되게 하신다. 성령을 통한 거듭남의 역사는 가히 놀라운 은총이다! 오직 십자가의 예수님만을 믿자.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님 역사가 우리의 삶과 교회에 일어나길 원한다. 아멘.

종교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꾸미고 있을 때 예수님은 베다니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계셨다. 그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막 14:3). 이 향유옥합의 가격은 당시 일꾼들의 일 년치 월급에 해당하는 300제나리나이었다. 당시 보통 유대인들의 어려운 생활 형편을 감안해 볼 때 이 여자의 행위는 비난을 받기에 충분하였다. 주위 사람들은 이 여자를 책망하였다.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삼백 제나리온 이 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쓸 수 있었겠도다”(막 14:4~5).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과 사람들의 생각과 달랐다. “가만 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막 14:6~8). 보편적 가치와 문화, 전통과 율법은 이 여자에게 중요하지 않았다. 향유옥합을 아낌없이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여자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예수님뿐이었다. 우리의 마음(렘 17:9)도 그러한가?

예수님은 이 여자의 행위를 두고 놀랄만한 말씀을 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막 14:9). 예수님은 자신의 전부를 드린 이 여자의 행위를 복음 안에 포함시켰다. 성경을 보면 믿음의 현장에 항상 여인들의 모습을 찾을 수 있다(막 5:25,41, 15:40~41,47, 16:1~2). 그런데 이처럼 은혜로운 믿음의 현장을 벗어나는 한 제자가 있었다. 그는 가롯 유대였다(막 14:10). 이러한 가롯 유대의 행위는 종교지도자들의 교만을 깨뜨리게 해결하여 주었다(막 14:11). 예수님을 열성적으로 따랐던 가롯 유대였지만 결국 그의 선택은 세상이었다. 그의 신앙은 말씀이 아닌 자신의 신념과 가치였던 것이다. 결국 그는 예수님의 원수들이 그의 죽음을 결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한가?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 있는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인가 아니면 세상인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 없네.” 아멘.

그곳에 소망이 있음을 보았다

4개월 동안 기도하며 준비하여서 드디어 밟게 된 선교지. 그곳은 먼지의 나라였다. 우리는 물고들이 내려오면서 1박을 한 뒤 또 내려가서야 사역지에 도착할 수 있었다. 짐을 풀자마자 전도지를 챙겨들고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영혼들을 찾아 나섰다. 그런데 뜻밖에 교회가 있었고, 예수님을 너무나 쉽게 받아들여 그야말로 감격의 사역을 마치고 돌아왔다. 다음 날 다시 다른 곳을 찾았는데, 그곳에서도 열렬한 반응을 보여 의아한 생각마저 들었다.

그날 평가회 시간에 좀더 먼 곳으로 나가 보기로 의견을 모은 뒤 “주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우리가 있길 원합니다.”라고 주님께 기도했다. 다음날 우리는 좀더 먼 곳의 사역지로 향하였다. 그곳에서 우리는 비로소 주님이 우릴 이곳에 보낸 이유를 알게 되었다. 그들은 예수님을 온갖 잡신들 속의 한 분으로 보고 있었다. 우리는 예수님만이 구원주이시며 예수님 외에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다른 길이 없음을 그들에게 깊이 깊이 꼭꼭 눌러 전했다. 그러나 그들의 관습 때문에 “저는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바꿀 수 없습니다.”라고 답하였다. 하지만 우리는 그곳에 소망이 있음을 보았다. 머지않아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것을, 메마르고 척박한 땅이기에 생수인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나 필요하며 축축한 단비로 예수 그리스도가 한 심령 심령 속에 내려지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우리를 이곳에 보내주시고 단기선교사로 사용하여 주신 것을 감사하며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 드린다.

김영미(집사, 20교구)

“주님! 감사합니다”

사탄의 방해는 우리의 사역 곳곳에 도사리고 있었다. 노방전도 중에 어디선가 나타난 술 취한 사람은 큰 소리를 지르며 우리의 복음전파를 방해하였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복음이 증거되었을 때 이글거려던 그의 눈은 어느새 어린 아이와 같이 되어 즐거워 복음 앞에서 “아멘.”으로 답하며 떠나갔다. 다시 그 자리에 정신이 온전치 못한 여자가 와서 우리의 사역을 방해하였다.

그러나 우리의 전도는 환경때문에 중단될 수 없는 영혼구원의 사역이므로 성령의 복음을 끝까지 담대하게 선포하였다. 복음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 떠난 뒤 그 자리에에는 주님의 계획 가운데 오늘 우리를 통하여 복음을 듣고 구원하시고자 하는 귀한 영혼들을 보내주셨고, 그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며 함께 기쁨을 나누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고 그 자리를 떠났더라면 이들을 만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패배하고 사탄에게 승리를 안겼을 것이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한 집으로 들어갔는데 유난히 많은 게들이 짓으며 우리의 출입과 복음 증거를 방해하였다. 순간 우리의 마음을 위축시켰지만 성령께서 담대한 마음을 주셔서 그 가정에서 구원에 이르는 복음을 증거해 주었다. “사탄은 사람과 짐승으로 우리의 사역을 방해하였지만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으로, 오늘도 우리는 승리의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영실(권사, 17교구)

주님, 오늘도 나에게

한 해를 마무리 하면서 올해에는 두 가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나는 나의 마음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과 또 하나는 가을에 외국에 있는 친정집에 갈 계획이었습니다. 친정에 갈 계획이 막히면서 실망이 컸습니다. 대신 선교지에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 교구에 신청을 했습니다. 훈련 중에 팀장님의 수솔로 팀장이 교체되었고, 훈련 기간 또한 길어졌습니다. 게다가 집안이 우환까지 생겨 선교를 못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잘 수습되었고, 기쁜 마음으로 선교사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선교지에 도착하였습니다. 문화도 언어도 생김도 다른 그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려할 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 줄 믿고 십자가 복음을 전하자 현지인들은 쉽게 잘 받아들였습니다. 아이들은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자기 친구들을 불러와 같이 십자가 복음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월 세 없이 전도하면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정말로 십자가 복음이 필요한 그 사람들에게 우리를 보냈고, 그들 중에는 정말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평가회와 합심기도 시간에 많은 영혼들을 만나게 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또 그 사탄들에게 뿌려진 믿음의 씨앗이 꼭 나리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하였습니다. 그 현지인들에게 십자가 복음을 전하였을 때 나의 마음은 더 뜨거워졌고 나의 마음이 주님께 더 가까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침 경건회 시간마다 기도했습니다. “주님, 오늘도 저에게 영혼을 죄에서 구원하소서. 전지는 십자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모든 영광과 감사를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드립니다. 아멘.

김영나(집사, 20교구)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십시 40도를 오가는 선교지의 날씨 속에서 ‘내가 선교팀에 방해가 되지 않을까?’ 염려가 되었다. 선교지에 도착하여 축조전도와 노방전도로 계속되는데 등과 가슴에는 땀이 줄줄 물 흐르듯 흐르고, 목은 말라왔다. 하지만 전도 문장 한 단락 한 단락을 외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바람이 불어 시원하게 맘을 식혀 주었다. 또한 찬양과 율동으로 그들과 더욱 친밀하게 느껴질 때 열정적으로 하고, 우리말로 기도할 때 주 안에 한 형제 된 것을 주님께서 알려주셨다.

초등학교에서 사역을 할 때였다. 나무 아래에서 아이들에게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함께 손을 잡고 찬양과 율동을 반복하고 고사리 같은 두 손을 모아 열정 기도를 하는 그들의 모습이 천사들을 모아 놓은 듯했다. 선생 한 분이 아주 숙련한 모습으로 함께 기도하고 계셨다. ‘저 선생님이 이 어린 생명들을 위하여 늘 기도하시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예수님께서 만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시원한 물만 찾는 내 모습이 너무나 부끄러웠다. 한 영혼이라도 더 만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발걸음 재촉하며 나는 속으로 고백했다. “주님! 해가 너무 빨리지는 않아요.”

문현옥(권사, 17교구)

이번 주에 출발하는 선교팀 (1개 팀)

기 간	팀	팀 장
6월 8일(화) - 6월 16일(화)	9교구 1팀	구성희

현재 사역 중인 선교팀 (3개 팀)

기 간	팀	팀 장
6월 2일(화) - 6월 10일(수)	1교구 1팀	구원식
6월 3일(수) - 6월 12일(금)	3교구 1팀	김 광
6월 4일(목) - 6월 11일(목)	5교구 1팀	이정태

지난 주에 도착한 선교팀 (2개 팀)

기 간	팀	팀 장
5월 25일(월) - 6월 2일(화)	24교구 1팀	이민숙
5월 25일(월) - 6월 3일(수)	19교구 1팀	최진성



간증과 나눔

날마다 내 자신이 죽도록

매년 매학기마다 말씀공부 잔치가 있음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예수님의 은혜와 영광과 긍휼을 우리의 삶에 넘치도록 부어 주셨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는 연약한 나의 죄성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별히 대살로나가전에서부터 디도서에 이르는 서신서를 통하여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 둘째, 주님과 함께 복음을 위해 고난 받는 성도의 신앙이 어떠해야 하는가? 셋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의 길을 걷는 성도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를 듣고 배울 수 있었다.

나는 지금 어떠한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가? 마치 이땅에서 계속 삶을 누릴 사람처럼 안주하는 나의 삶은 아닌지. 주님을 기쁘게 하려는 마음보다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 애쓰는 삶을 살고 있는 건 아닌지. 바울은 밤낮으로 일하면서 복음을 전하였는데 전적인 복을 전파와는 멀어져 있는 나의 심령과 믿음, 발걸음을 발견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은 나의 거룩함이라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나의 거룩함을 상실한 건 아닌지, 주님의 날에 대한 소망 없이 사는 건 아닌지. 다른 사람들 눈엔 믿음이 있는 척 속일 수 있지만 내가 생각하고 바라보는 것보다 나의 삶이 주님과 멀어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님 앞에서 나는 소망한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연합된 삶을, 내 심령에 예수님만 살아계셔서 날마다 내 자신이 죽도록.

박인희(집사, 수요성경공부 수료자)

하지만 이젠 깨달았습니다

세상의 초동학문 철학이 나를 사로잡을까봐 주의를 주시며(골 2:8), 세상적인 것을 내려놓고 수요 성경공부에 참석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 주였던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 컸기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고자 이 감사문을 작성하였으나 끊임없는 죄악 속에 빠져있는 나 자신의 잘못을 발견하고 이런 간증을 할 자격이 없음을 깊이 깨닫고 반성하게 됩니다.

부족함이 많은 저에게 베푸시는 사랑과 은혜가 크기에 항상 주님 앞에서는 부끄러운 나의 모습을 책망하며 그 은혜에 어떤 형태로든지 보답하고자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이젠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그 어떤 무엇도 주님의 것,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지 않은 것이 없음을. 지금 이 순간 존재하고 있으며 또한 저의 슬픔도 기쁨도 모두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내 안에 항상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당신께서 나와 동행하여 주시니 지금 이 순간에도 저는 편안하고 행복합니다. 감히 사랑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김소윤(성도, 수요성경공부 수료자)

순종하라

신명기 말씀을 들으며 일상생활에서 주시는 은혜가 차고 넘치는 데도 깨닫지 못함을 회개하며, 믿음으로 고백을 하였으나 세상과 구별됨이 없이 타협하며 살아온 자신을 알게 하셨다. 주님의 한없는 사랑과 묵묵히 기다리시는 인내하심도 감사하다. 하나님은 택한 민족에게 노예생활에서부터 광야 40년을 마칠 때까지 전 역사를 간섭하심으로 영원한 믿음의 근거와 생활의 규범을 명하셨으며, 민족을 다시 세우시며 절대적인 순종과 헌신을 명하셨다. 그 가운데서도 불순종으로 인한 고난의 삶을 살아가는 어려서는 백성들을 끝까지 인내하시며 기다리시는 주님이셨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심을 잊은 채 혹여 '예배와 삶을 준비없이 지내온 시간이 없었는가?'를 나는 반성한다. 분명한 사실은 주님께선 언제나 그곳에서 지켜주시며 기다리시며 용서하신다.

이번에 배운 말씀이 나의 삶 속에서 도전이 되어, 배우고 읽고 기억함으로써 순종하며 헌신할 수 있기를 원한다. 주님은 준비된 자, 깨어있는 자를 사용하신다고 하셨다. 첫째도 둘째도 순종하라 하셨다. 한계가 있는 순종이 아니라 죽기까지 순종하라 하신다. 순종과 헌신은 멀리 있음이 아니다. 언제나 주님이 함께 하시므로 주께서 원하시는 계획에 합한 쓰임 받는 그곳이 되도록 자신을 부인하며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한다.

오혜숙(권사, 수요성경공부 수료자)

호흡이 있는 날까지

겨우내 얼어붙은 앙상한 나무가지에 새들이 울기까지 앉아 지기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 노래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나도 주님께 찬양하고 싶었다. 산속을 혼자서 걸을 때마다 목소리를 높여 주 하나님을 노래하다 보면 새들도 비참소리로 함께 어우러져 시냇에 다윗의 시처럼 만물이 주님을 찬양하는 듯했다. 3월,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되는 시간에 찬양대원양성부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다. 강의실에 모인 성도들은 모두들 낯선 표정으로 함께 개강예배를 드리고, 찬양대원의 조건과 자세를 배우면서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게 된다. 찬양대는 예배를 담당하는 수종자임을 알고 '꾸준한 연습과 영적인 찬양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강의를 듣는 내내 이 열정으로 임해야겠다.'고 다짐을 했다.

매 시간마다 들어오는 강사들은 발성연습과 음정, 계명, 가사의 중요함을 모두 알려주기에 한 시간 삼십분이 너무 짧아 안타까워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어느 곳에서 이 좋은 강의를 들을 수 있었는가! 이것도 주의 은혜임을 감사하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찬양이 묵음을 열었고 다윗의 시편이 '찬양' 그 자체이기에 찬양의 중요함은 영원한 것이었다. 이제 기쁨을 펴고 입을 크게 벌려 죄인인 나에게 구원을 베푸신 주를 호흡이 있는 날까지 영원토록 찬양하리라!

한성희(집사, 찬양대원양성부 수료자)

나를 부르신 주님!

처음 중등2부에 가서 봉사하게 되었을 때 먼저 교사 양성부를 수료해야 한다고 들었다. 나는 '교사가 그 날 애를 가르치고 교회에 잘 나오게 하면 뭣지, 귀찮게 이런 걸 들어가 하나?' 하고 생각했다. 그러나 총 12번의 강의를 들으면서 나는 생각을 달리 하게 되었다. 첫 시간에 교사의 소명에 대해 들었을 때 교사는 내가 하고 싶어서 봉사한다고 생각했는데 나를 사용하시는 분은 주님이시고 부르시는 분이 주님이셨음을 깨달았다. 학생들에게 전할 말씀은 주일 전 날 토요일에 준비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다. 일주일 동안 준비하며 말씀과 기도로 임해야 했다. 당연한 건데 매년 잊고 내 힘으로하려 했다는 걸 생각하니 역시 사람은 죄인이라는 것을 느꼈다.

또한 '성경 지식은 내가 아이들보다 많이 아니라 그 날 주제의 성경 말씀을 읽고 가르치면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려서로는 생각이었다. 매일 성경 말씀을 하지 않은 내는 열정적으로 어린 아이와 같았다. 그 다음엔 소그룹의 중요성을 배웠다. 소그룹은 단순히 하나님께 봉사하려고 만든 줄 알았는데 서로 사랑하는 것과 교회와 의사소통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곳이라는 것을 새롭게 깨달았다. 교사양성부는 내게 교회의 모습을 가르쳐 주면서 주님과 관계를 돌이켜보는 유익한 시간이었었고 즐겁고 감사한 시간이었다.

현건희(학생, 교사양성부 수료자)



청지기칼럼

‘집자가 복음’, 그 생명의 말씀으로

종갓집 만비리로 유교관습에 매인 삶을 살다가 믿음생활을 시작했지만, 세상 구수와 고경 관념을 버리지 못하고 나의 이성과 의지, 지식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세상의 행복과 축복만을 구하며 지극히 세사적인 방법으로, 이 세상의 삶에 초점을 맞춘 믿음생활을 하였습니다. 나의 죄인됨과 나의 죄를 대신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여 구원의 기쁨, 새 생명의 기쁨을 전혀 체험하지 못한 무지한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의 삶속에 인도자가 되어 주셔서, 의식 많은 도마같은 나에게 항상 말씀하여 주셨습니다(시 121:1~3).

매번 말씀으로 만나 주셔서 주님의 함께하심을 체험케 하시고, 반복되어 간절히 선포 되어지는 ‘십자가 복음’, 그 생명의 말씀으로 주께서 베푸시는 복음의 능력을 공급받아 주의 소우림 백성으로 모든 삶의 집, 죄의 집을 내려놓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참으로 연약한 자를 사용 하셔서 주께서 베푸시는 구원사역에 동참케 하심으로 구수에 매였던 시부모님과 동기자들을 모두 구원백성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께서 베푸신 은혜가 컸지만, 주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은 잠깐이고, 주께서 부르심에 순종하는데 아직도 내 중심적인 이기심과 계으름과 연약함으로 주께서 주신 직분과 사명이 무겁게만 느껴져서 “저는 못합니다. 감당할 재목이 못됩니다.” 하며 두려움으로 내 능력을 판단하며, 순종하는 자에게 능력 주시며 도우시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만 바라보며, 은혜의 바다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요 6:35). 누구든지 주님께 진심으로 나아오는 자를 외롭다 하시는 분인 줄 믿사오니, 눈 앞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며, 세사적인 이기심과 교만을 버리고, 겸손히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오는 성도되게 하소서. 주께서 주신 직분과 사명 경중히 여기지 않고, 성실히 감당하며,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기도의 무릎을 깊이 꿇는 성도되게 하소서. 삶속에 간절한 회개로 경건케 하시고, 영원을 사모하는 귀한 마음으로 십자가 복음을 주님 오실 때까지 전하는 성도되게 하소서.



성지현(전사, 16교구)

권사회 수련회를 마치고

“일어나 가서 외치라”

이번 권사회 수련회의 은혜의 자리로 주님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먼저 찬양하는 동안 녹스 마음의 빗장이 열려 예배 가운데 주님 보좌에 나아가며 나아가서 강해를 통해 친히 저에게 말씀으로 감동하신 뿐만 아니라 굳은 심령을 기경하시며 매마른 영혼에 단비를 내려주셔서 만족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첫째 날 특강은 성령의 기쁨 부으심의 풍성함으로 마음이 뜨거웠습니다. 이방 가운데 십자가 복음이 어떻게 들어왔으며, 복음을 위해 순교하신 많은 선교사들을 통해 지금의 우리가 어찌 구원을 받을 수 있었나를 알게 하셨습니다(로 1:2). 이방 나라를 구원 하시려는 놀라운 계획도 보여주셔서 택한 주님의 자녀들이 깊이 묵상하며 세계 열방을 기도로 품게 하였고, 자신성과 자기 감정에 맞지 않아 불평하며 여호와와 다투는 피하여 말씀을 외면한 요나의 모습 속에서 차마 보아주지 않고는 나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모습도 발견했습니다. 결국 불순종의 요나는 풍랑 한가운데 바다에 던져지고 밤 날 삼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며 오직 하나님께 참 회개의 기도로 서원함이 삶의 여정 가운데 내 앞에 놓였던 아람 골짜기와 거친 광야에서 건져주신 구원의 예수님을 만난 그때와 어찌 그리 같은 은혜인지요?

생명의 말씀은 시간 시간마다 내리지고 십자가 복음은 능력으로 제 속에서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껏 영광의 주님만 소망하던 저였습니다. 이런 저에게 찾아오신 그분의 모습은 멀리서 사람에게 있어 버린바와 큰 십자가에 걸린 예수님이었습니다. “이 큰 은혜가 저에게 임하시니이까? 내 사랑함이 은혜입니까?” 감사의 눈물과 함께 찬미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주님께는 여전히 약속한 언약을 성취하시려고 쉬지도 않으시고 “저는 자여 어찌할이나 일어나서...”, 말씀으로 소명합니다. 이때 겸손히 기도합니다. “주님! 생명의 피신 그리스도 복을 전달하는 보배로운 그릇으로 빚어 주소서. 먼저 깨뜨리시고 부수시고 더듬으신 터인데 저로 순복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 되게 하소서. 아멘.”

함윤자(원사, 4교구)

수화칼럼 ④ 사도신경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성육신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 구원을 위해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것이 인류의 죄를 속량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이다. 완전한 인간이셨던 예수님은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최악의 고통을 당하시며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1. 본디오 2. 빌라도에게



3. 고난을



4. 받으사



5. 십자가에



6. 못 박혀



7. 죽으시고



♡ 새 가 족 을 환 영 합 니 다 ♡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882	조영애	1	장년2부		912	김준서	19	장년부	장영혜(22)	942	김경희	2	청년1부	이동훈(17)
883	박윤신	5	고동부		913	박효진	23	장년2부	서정숙(23)	943	한수진	20	장년2부	한숙희(24)
884	김민영	11	장년2부	김옥희(22)	914	장영선	8	장년부	장영수(16)	944	유영은	20	장년1부	한숙희(24)
885	차예스니	1	장년1부	장영희(17)	915	변현숙	20	장년부	장영수(16)	945	한성순	20	대학부	한숙희(24)
886	김영선	1	대학부	장영희(17)	916	박준호	8	장년2부	김영희(16)	946	한지혜	20	대학부	한숙희(24)
887	신 호	10	소일부	최진희(22)	917	홍동준	8	장년1부	장영희(16)	947	여나영	24	청년1부	김민재(24)
888	김민영	22	중동1부	구자은하	918	정승호	3	청년1부	오영실(10)	948	박경희	20	대학부	강영희(24)
889	김준서	22	중동1부	김희숙(22)	919	김영희	9	장년부	김대옥(15)	949	한민일	4	청년1부	임종순(22)
890	허준우	8	장년1부	김재호(22)	920	양영선	24	장년부	김민선(24)	950	신우영	24	장년1부	손단리(24)
891	최희준	14	장년1부	구성희(16)	921	김혜나	12	대학부	김영선(18)	951	이복경	15	장년1부	김영희(15)
892	박현진	11	중동2부	신영민(11)	922	김봉주	16	장년부	한민숙(16)	952	정영선	2	청년1부	배경희(24)
893	김영주	3	중동2부	안대현(11)	923	박지수	3	초동부	김영숙(24)	953	김은경	8	청년2부	김자숙(18)
894	서영순	8	장년1부	김영희(16)	924	사건영	2	대학부	이영희(22)	954	오재철	20	청년1부	이예수(24)
895	이민정	22	장년2부	신민정(22)	925	서윤우	21	대학부	김지혜(12)	955	정준형	14	중동1부	송준석(16)
896	정재태	2	청년2부	윤은숙(16)	926	김경순	23	장년2부	남영숙(24)	956	이아름	19	장년1부	김경숙(15)
897	김민영	22	장년2부	최영희(22)	927	박나경	25	대학부	신은남(10)	957	황영희	19	장년1부	주옥희(18)
898	김영선	10	대학부	서정숙(23)	928	이예은	25	대학부	유재희(22)	958	조종우	17	대학부	장영희(16)
899	김영희	10	장년4부	전민정(24)	929	김민아	2	대학부	이옥희(22)	959	박수경	14	장년1부	구성희(16)
900	김영희	6	고동부	장영진(11)	930	김조은	16	유년부	서정숙(23)	960	이영수	17	대학부	박시숙(12)
901	지영은	4	장년3부	김은숙(14)	931	한영희	11	장년2부	김민선(16)	961	최지혜	24	대학부	박시숙(14)
902	손은선	19	장년1부	안영희(15)	932	조은혜	12	고동부	장영진(22)	962	유아은	19	장년1부	김자숙(17)
903	송희영	19	대학부	유정희(16)	933	조준호	1	장년1부	장지혜(11)	963	김영희	7	청년2부	유리숙(18)
904	한지혜	12	청년1부	박지은(11)	934	김미영	1	장년1부	장지혜(11)	964	정준호	5	대학부	윤재희(16)
905	이영진	24	청년2부	고영희(23)	935	이영희	23	장년부	김은숙(23)	965	이유진	11	대학부	김자숙(11)
906	송희영	13	장년1부	박지은(11)	936	이영희	5	고동부	박지은(16)	966	조종우	18	장년1부	김은숙(16)
907	박준호	12	장년1부	권복희(11)	937	홍준우	6	대학부	조영희(16)	967	이유진	5	대학부	이영희(13)
908	윤은희	13	대학부	김은숙(16)	938	박지은	10	대학부	이유진(10)	968	박준호	5	대학부	이영희(13)
909	김민정	13	대학부	이영진(23)	939	최영희	23	장년2부	이은진(10)	969	한지혜	6	장년1부	김자숙(16)
910	송희영	11	대학부	조영희(16)	940	한민정	23	장년2부	김자숙(16)	970	김나영	24	대학부	주옥희(18)
911	송희영	1	장년2부	김자숙(11)	941	장영희	23	장년2부	박지은(10)	971	한민정	22	대학부	최 하림(16)

* 순회교회와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